

仁同張氏世譜序 其一

國之史家之譜雖有大小公私之別而有關於風化者相表裡焉昭載治亂興亡盛衰之蹟使後世之爲政者觀於此而講求治平之道譜者詳記祖宗派系昭穆之序使後世之子孫觀於此而感發愛敬之心苟人之愛其親敬其兄則風美俗厚而易行治平之道不外於是矣然則史與譜於風化豈不然表裡相関耶惟吾張氏系出仁同有諱金用以麗朝大匡勲業冠蓋一世世襲冠冕爲世大顯爲仁同之俶祖焉曰松隱先生太祖以潛邸之舊屢降玉札連徵不詣杜門晦跡其貞忠大節不言而推悉也曰紀乾官至鎮安縣監專以清慎廉直爲政本晚而投紱退隱于金溝金溝之張自公始分派而戊申年以鎮安公派始修譜焉其後曆甲午年再譜然解放以來世道搶攘倫綱頽弦親親之仁敦族之義庶幾絕無况吾宗族居不同鄉散住四方見之稀少殆若路人之不相識而頓忘昭穆系緒之別以是爲懼昨辛酉門會燾圭八圭修譜之意建議衆口歸一一言可決乃收單修譜各保一帙講明祖德則上系之統緒後承之派

分瞭然於胸中而孝悌之心油然而近者必篤遠者必近程夫子所謂收宗族厚風俗者非耶譜規一遵舊例印役告竣不可無一言而以弁首之文屬不佞自顧淺見薄識不能堪當而義不固辭畧叙顛末後之賡修者如僉宗賢勞而僉忝所生焉則在天先靈必覲然曰余有後孫默佑之盍相勉焉

壬戌九月

日

後孫八十二歲

燾圭

謹序

仁同張氏世譜序 其二

國家에 國史가 있는 것과 같이 私家에는 族譜가 있으니 이는
歷史와 根源을 찾아 愠故而知新하는 智慧를 開發하는데 意義가
있다고 生覺하며 또한 宗族을 收族明系함으로서 百代之親의 美風
良俗을 鼓吹하여 總和團합으로서 國益과 家門의 發展에 寄與한다
면이 또한 聖業을 본받음이 아니겠는가

吾宗始祖이신 太師公諱 貞弼할아버지는 中國에서 來東하여 처
음에는 江原道 江陵에 卜居하였는데 그 後 慶尚道로 南下하여 蘆
田에서 世居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時代가 玄遠하여 代序昭穆을
考憑할 文獻이 없으므로 不敢承系故로 大匡公諱 金用할아버지를
遠祖로 모시고 其後三十餘代에 이르기까지 名公巨卿과 鴻儒碩士
가 繼繼承承하고 忠孝顯達이 彬彬郁郁하였으니 이는 모두 仁同鼻
祖의 後裔들이다 麗季에 松隱先生諱 安世할아버지가 杜門洞에

隱遯하여 不事二君의 忠節을 다하여 李太祖의 屢徵에 不起하시여 忠貞의 諡號를 받았으니 豈不盛哉리요 先生의 孫子이신 鎭安縣監 公諱 紀乾 아버지께서 九成山下金溝에 始居하신지 數百年에 名公 碩德하고 子孫이 甚繁하였다

吾宗歷代譜役을 살피본다면 始修己丑譜以來 癸卯、癸亥、乙丑、壬申、戊申、甲午、丁未等 凡八刊의 大譜와 派譜를 修刊하였는데 今譜의 發議는 丁未大譜以來 十六年이 經過하였고 甲午派譜도 二十九星霜이 흘러 其間 生卒稼娶의 變遷이 不知其數로서 散居八方하니 修譜時期가 到來하였음으로 去年冬至에 開催한 本宗定期總會에서 派譜編纂을 決議하고 따라서 菲才淺學한 不肖가 그 所任으로 委囑되었음을 猥濫되게 生覺하면서 그後부터 一年동안 鎭安公以下 遠近의 宗族으로부터 收單釐整한 結果全四卷으로 編成하니 其中一卷은 行狀과 墓誌篇이 되었다 編輯凡例는 一遵舊譜하되 畧有

增減하여 散居宗族을 共載一譜하니 累代昭穆이 一目瞭然하다 此
譜之完成은 二十九年以來의 慶事로 自負하면서 自此以後千枝萬葉
之義를 더욱 崇尚하고 親睦敦族하는데 吝嗇하지 말고 吾宗將來의 發
展을 爲하여 다 함께 相扶相助할 것을 다짐하면서 所任으로서의 胷
中の 所感一端을 表하고 冊 머릿말에 가름하는바 입니다

西紀一九八二年 壬戌孟冬之 月 日

後孫 編纂委員長 八圭 謹序

舊譜序

張氏族譜譜張氏之族體同國有國史史所以徵得失譜所以尊親親順其序而正其倫尊其祖而敬其宗譜脩之義豈不重且大歟我張氏系生仁同有諱金用以麗朝大匡勲業冠蓋一世世襲冠冕名公碩德爲世大功實爲仁同之鼻祖焉逮松隱先生龍潛舊交運當百六以罔僕之義杜門自靖其貞忠大節與首陽山色同上下諡曰忠貞孫諱紀乾以鎮安縣監嘉遯于金溝之九成山中金溝之有張自公而始無慮百千 純廟癸亥間始有修譜之議京而鉉禹氏諸公鄉而我五世祖杏齋公同敬軒公周旋遂成大譜至壬申而再焉皆則高祖考三秀軒公實相役焉自甲午更張後世道日益汚下且雲仍散布四方末由大合一適齋先生憂宗族之服盡情疎漫漶無稽王考九溪府君與休亭公譜合鎮安公派一族若路人更爲同堂然孝悌之心油然而生者實先獲處也嗚呼不數年園步益艱難至庚戌而極矣先生之怡然就義也王考常遑遑乎無所依歸杜門歛蹤以保族宜家爲一乃心力皇天降禍遽然下世不肖之鹵莽滅裂當此海洋翻天腥血盪地朝生暮鬼雖欲收拾先業之萬一歎無爲之何幸修譜議同無有闕漏印成四弓狀行墓誌別爲一弓文獻昭著繼承接續其於親親之義涉險之道大有所補云爾

歲甲午(一九五四年)三月上浣

後孫 鉉重 謹序

舊譜序

(번역문)

張氏의 族譜는 張氏의 一家만을 族譜한 것이지만 體는 나라에 國史가 있는 것과 같

다 史記는 得과 失을 考証하는 所以이고 族譜는 親한 이를 親하게 하는 것을 높이
는 所以로서 그 順序에 따라서 其倫記를 바르게 하고 그 祖上을 尊重하고 그 宗族을
공경하는 것이니 族譜를 하는 義가 어찌 重하고 또 크지 않겠는가?

우리 張氏는 諱 金用 할아버지께서 高麗朝의 大匡으로 勲業이 한 世上을 덮었고 代
대로 버슬을 이어받아 名公과 碩德이 世上에 大公이 된것은 實은 仁同의 鼻祖가 된
다 松隱先生에 미쳐서 太祖大王의 潛邸때 親舊로 百六運(나쁜 운수)을 만나서 臣下
노릇 안하는 義로 門을 닫고 自靖하니 그 곧은 忠誠과 큰 節義는 首陽山色과 더불어
上下가 같고 謚號는 忠貞公이다 孫子이신 諱 紀乾 할아버지께서 鎭安縣監으로 金溝
의 九成山中에 숨어 살았으니 金溝에 張氏가 있는 것은 公으로부터 始作되었는데 무
려 數百年이 된다 純祖朝 癸亥年間에 비로서 族譜하려는 議論이 있어서 서울에는
鉉宇氏 諸公이고 시골에는 나의 五世祖 杏齋公이 敬輯公과 같이 周旋해서 드디어 大
譜를 이루었다 壬申年에 이르러 두번 했으니 때인즉 高祖考 三秀軒公이 실상 役을
도왔다 甲午更張 以後로부터 勢道가 날로 더욱 내려가고 또 子孫이 四方에 흩어져
살아서 크게 合할 길이 없으니 一適齋先生이 宗族이 十寸넘어 情이 疎忽해져서 상고
함이 없을까보아 걱정했고 王考九溪府君이 休亭公으로 더불어 族譜에다 鎭安公派一
族을 합해 놓았으니 길가는 사람 같은이가 다시 同堂의 지친이 됐고 孝悌之心이 油

詩云天生烝民有物有則民之秉彝好是懿德德是六而曰知仁聖義忠和行有六而曰孝友睦婣任恤孝爲百行之源而不忘所由追遠報本故有初祖始祖至禰而祭然無譜則世遠人亡難記歷代之派今源同矣我東禮義休明上自王公莫不有譜以爲尊祖收族而惟我張氏之厥初生想惟一而書譜以前年代派系不可攷故各貫始封之祖貫亦難盡記矣仁同麗德水之張爲一國之望族而我族之貫仁同者在高麗有諱金用三重大匡上將軍自是以來梟孫之蕃衍簪纓之輝赫綿瓞奕世至諱安世正憲大夫德寧府尹德行節義之卓犖爲世推重麗亡入杜門洞而我太祖以潜邸舊屢徵不就謚忠貞號松隱以下子孫派分而自仁同京與金溝各居一方累度修譜或合或分常議歸一而未茲豈非世衰教弛道且云遠而然歟有志竟成留俟後日而見今京仁二派既成派譜勢不可合故壬申以後鎮安公各派子孫之漏譜者俱收成譜以爲異日修成合譜以篤乎百世親睦如木之根一枝萬葉之落者散飛無方而終歸根如水之源同派異流而注者萬折其曲而必就東於斯二物亦豈無觀感而興乎哉凡我來裔勗哉自己乙丑壬申譜凡再成而我與京派各起中祖於金海公之下者深加慎重之道也譜規一遵舊例焉

隆熙二年戊申(一九〇八年)孟夏 嘉善大夫侍從院副卿 後孫 泰秀 謹序

舊譜序 (번역문)

대개 太極이란 것은 天地萬物 迹化의 祖宗이고 사람과 物은 각기 한 太極을 갖추었

으니 또한 처음으로 난始祖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姓을 얻고 氏를 받아서 가장 靈貴한 것이 된다 詩傳에 이르기를 하늘이 모든 百姓物을 낳았으니 物이 있다면 法이 있는 것이다 百姓이 떳떳한 것을 잡고 이 아름다운 德을 좋아했으니 德은 여섯가지로 知와 仁과 聖과 義와 忠과 和요 행하는 것도 여섯가지가 있어서 孝와 友와 睦과 婣과 任과 恤이니 孝는 百行의 根源이 돼서 由來된바를 잊지 않고 먼 것을 追慕하고 根本에 報答하는 것이다 故로 初祖始祖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이르러 제사가 있으나 그러나 族譜가 없으면 世代가 멀어지고 사람이 죽어서 歷代의 派가 나뉘지고 根源이 같은 것을 기록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禮儀가 아름답고 밝아서 위로 王公으로부터 族譜를 해서 祖上을 존중하고 일가를 거두지 않는 이가 없다 오직 우리 張氏의 처음 난이도 생각컨데 오직 한 분일텐데 族譜하기 前에 年代와 派系를 상고할 수 없는 까닭에 각기 처음 封한始祖를 貫으로 해서 貫도 또한 모두 기록하기가 어렵다 仁同과 德水의 張氏는 一國의 望族이 됐는데 우리 일가에 仁同으로 貫鄉하는 者는 高麗時代에 諱 金用 할아버지가 세셨는데 三重大匡上將軍이며 이로부터 以來로 子孫이 번성한 것과 벼슬의 빛나고 빛난 것이 뻗어나 代를 이었고 諱 安世 正憲大夫 德寧府尹에 이르러서 德行과 節義가 卓越하여 推重되었고 高麗가亡하자 杜門洞에 들었었는데 우리 太祖가 潛邸때 舊

宜로 여러번 불렀으나不就했으며諡號는 忠貞이고 號는 松隱이니 以下 子孫이 派로
나뉘서 仁同과 서울과 金溝에서 각기 살아서 한 지방에서 여러번 族譜를 하고 或合
하고 或나뉘서 恒常 하나로 하려다가 못했으니 이것이어쩌면 세상이 衰하고 教化
가 解弛하고 길이 또한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질 것
이니 머물러 后日을 기다려야 되고 現在 서울과 仁川 두 派가 이미 族譜를 이루었으
니 사세가 합할 수 없는 까닭에 壬申年以後 鎭安公派 子孫의 族譜에 누락된 자를 모
두 收單해 族譜를 만들고 다른날 合譜를 만들어서 百世의 親睦을 篤實히 하려고 하
니 나무의 뿌리가 한 가지(枝) 萬 잎사귀가 떨어져 흩날리는 곳이 定處가 없으나 마
침내는 뿌리에 돌아가는 것 같고 물의 根源이 派가 같고 흐르는 것이 달라서 대는
것이 그 굵이를 만가지로 꺾으나 결국 東으로 나가는 것과 같으니 이 두가지가 또한
어찌 보고 느껴서 흥기하지 않을까 보나 무릇 우리 后孫들은 힘쓸지어다
乙丑 壬申年으로부터 族譜를 두 번 했는데 내가 京派와 더불어 金海公 아래에다 中祖
로 각기 일으켜 놓은 것은 慎重한 道를 길이 더해 놓은 것이고 族譜의 法規는 舊例
를 한결같이 따랐다

隆熙二年(檀紀四二四一 西紀一九〇八) 戊申孟夏 嘉善大夫 侍從院副卿 后
孫 泰秀는 삼가 序한다

舊譜序

張君允植有舊於余爲言其世德而歎今之衰墜不振余曰不有以孝弟敦睦率厲宗黨者乎君又喟然曰族兄故左尹寅植殆其人也恒以爲尊祖收族莫如譜系之書手自編摩以續其舊間使允植相之者數年未就而沒允植慨然告諸宗人俾完其事群議合一相助以財工費幾月鋟印成帙凡若干卷仁同之張以三重大匡公爲鼻祖在麗伐已多隆顯入我朝四百餘年世襲冠冕家傳孝謹閱閱既盛雲仍益繁寔惟我祖先深仁厚德毓慶儲祉傳之無窮者原其始譜則者崇禎再癸卯（一七八三年）而無刊本其後八十三年至乙丑（一八六五年）而大譜成後又近七十年而未能繼修子孫白首之人皆不得載名其中於是先從太常卿公派系爲癸亥譜是乃左尹兄之所苦心而仍復博采廣蒐期修大譜今焉左尹兄墓草宿而其志竟成允植竊爲之深幸也敢請爲文以弁之余乃作而言曰盛矣哉夫修譜者何爲爲合族也以其族布散八方而共載一書上泝乎源本所出則是一人之骨肉血脉相承以傳各生其身其身之生而其有不思其所以生者乎蘇明允所以孝弟之心可以油然而生者蓋亦以是而左尹修譜之意可知也與詩云千祿百福子孫千億不愆不忘率由舊章君與君之族盍相勉旃

崇禎五壬申（一八七二年）季秋

嘉善大夫吏曹叅兼同知 經筵事藝文館提學 達城 徐承輔 書

舊譜序 (번역문)

張君尹植이 나와 옛情이 있는데 그世德을 말하면서 지금衰退하고墜落해서떨치

지 못한 것을 탄식하니 孝悌와 敦睦으로서 宗黨을 거느리고 독려하는 자가 있지 않은가 君이 또 탄식하며 말하기를 族兄 故左尹 寅植이란 분이 자못 그런 분인데 항상 말하기를 祖上을 존중하고 일가를 거두는 것은 族譜만한 것이 없다 하고 손수 編摩해서 그 옛것을 계속해 놓고 간간히 允植으로 하여금 돕게 한 것이 數年이지났는데 成就를 못하고 죽었는데 允植이가 탄식해서 諸宗人에게 알려져 하여금 그 일을 完成하라고 하니 여러 議論이合一이 되어서 財力으로 돕고 몇달이 걸려서 出刊해 帙을 이루니 若干卷이다 仁同 張氏는 三重大匡公으로 鼻祖를 삼고 高麗時代에 이미 顯達한 이가 많고 李朝에 들어와 四百餘年동안 벼슬이 代代로 이어지고 집에는 孝와 謹을 傳하고 門閥이 이미 좋아지고 子孫이 더욱 번성했으니 이는 오직 우리 先祖의 깊은 仁과 두터운 德으로 慶事를 흘리고 德을 쌓아서 무궁하게 傳할 것이다 그 처음 族譜할 때를 근원해 보면 崇禎再癸卯年(西紀一七二三)에 했는데 刊本이 없고 其后 八三年 乙丑年에 이르러서 大同譜가 이루어진 뒤에 또 近七〇年이 가까워 오는데 능히 계속해 하지를 못해서 子孫中에 늙은이도 모두 그중에 이름을 실리지 못했으니 이에 먼저 太常卿公 派系를 좇아서 癸亥譜를 만들었으니 이는 곧 左尹兄의 苦心한 바이고 인해서 다시 널리 採擇하고 널리 蒐集해서 大譜이루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左尹兄이 돌아가신지 一年만에 그 뜻이 마침내 이루어 졌으니 나는 그윽히 다

행으로 여긴다 敢히 序文을 請합니다. 내가 일어나 말하기를 장하다 무릇 族譜 닮
는 것은 무엇때문에 하는가 宗族을 合하기 爲해서이다 그 宗族이 八方 흩어졌는데
한책에 같이 실려서 위로 本源에 나온바를 溯及했은즉 이 한 사람의 骨肉과 血脈이
서로 이어 傳해져서 각기 그 몸을 낳아 그 몸이 생겼는데 낳은 所以를 생각하지 않
아서야 되겠는가 蘇明允(蘇老泉·東坡의 父로 族譜를 最初로 한 宋나라 사람)이 말
한바 孝悌의 마음이 가히 油然而生된다는 것도 대개 역시 이 때문이고 左尹의 族譜
하는 뜻도 가히 알겠다 詩傳에 이르기를 祿과 百福을 구함에 子孫이 千億이로다
허물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아서 舊法을 유연히 따르라 했으니 君과 君의 일가들은
대개 서로 힘쓸 것이로다

崇禎五壬申季秋(檀紀四二〇五 西紀一八七三)에 嘉善大夫 吏曹判書兼 同知經
筵事 藝文館提學 達城 徐承輔는 삼가 書하다

舊譜序

我東士族之有系譜盛矣張氏之貫玉山者實維甲乙族而譜以高麗三重大匡公爲始歷幾世至太常
卿公自是以後益蕃衍而亦燁燁焉系牒之作始在於 崇禎再癸卯(一七八三年)其所編成不能無
闕略而亦未及刊行久爲闔族所共恨今其發議增修豈不善哉太常卿十四世孫鉉禹乃克惓惓於門

內先輩所未遑之事就其家藏者而復加編摩罔有闕遺遂成巨牒鼻祖以下三十餘世之間昭穆有序宗支有別一緡閱而可得瞭然儘可謂明於譜者歟噫譜者實所以收宗族而厚風俗立忠義而立朝廷也凡譜於斯者苟能有觀乎程張所訓則其於承先裕後保族宜家顧何有哉歲時花樹之會宜以此惕勵焉余於斯譜忝在外裔竊有興感者深謹庸識之如此云爾

崇禎後三癸亥(一八〇三年)孟冬

逸贊成德殷

宋煥箕

謹序

舊譜序

(번역문)

우리 나라 士族에 系譜있는 것이 많다 張氏로 玉山에 貫鄉한 자가 실상 甲族 乙族인데 族譜에 高麗 三重大匡公을 始祖로 삼아서 몇代를 지나서 太常卿公에 이르렀으니 이로부터 以後로 더욱 번성하고 또한 顯達하였다 族譜만드는 일은 崇禎再癸卯年(西紀一七二三)에 시작했는데 그 편성한 바 빠지고 略한 것이 없지도 않고 또 미쳐 刊行을 못해서 오래도록 여러 일가의 恨한 바가 되었는데 지금 發議해서 增修한다 太常卿 十四世孫 鉉宇氏가 이에 능히 門中內 先人들이 미쳐 못한 일을 그 간진한데 나아가서 다시 編摩를 더하고 闕遺를 없애서 드디어 巨牒(큰 족보)을 이루었으니 鼻祖以下 三十餘世 사이에 昭穆이 차례가 있고 宗孫과 支孫이 區別이 있어서 들추어 봄에 가히 一目瞭然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가히 族譜의 밝은 자라 이르겠다 아! 族譜는 실상 宗族을 거두고 風俗을 厚하게 하고 忠義를 세우고 朝廷에서

所以이니 무릇 여기에 族譜한 이는 진실로 능히 程子(宋의 明道先生·學者)와 張子(宋의 橫渠先生·學者)의 말씀한 바를 본다면 그 先代를 잇고 后孫을 裕足하게 하고 일을 保存하고 집을 마땅히 하는 데에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는가 歲時 花樹會宜當히 이것으로 격려할 것이다 내가 이 族譜에 外孫의 대열에 있으니 그윽히 감회를 일으키는 것이 깊어서 삼가 써 이와 같이 쓰노라

崇禎后三癸亥孟冬逸(檀紀四一三六西紀一八〇三)贊成德殷 宋煥箕는 삼가 序한다

仁同張氏世譜舊序

有國而史有族而譜史與譜識其詳也明其實也國既不可無史則族亦不可無譜也審矣嗚呼惟我張氏皆宗于仁同自三韓以來閱千百載綿瓞不億然屬疎裔遠今或有族別而貫異者其源流之派分枝幹之旁達雖莫徵其始自何代而惟吾宗獨以三重大匡諱金用爲鼻祖其在勝國位極顯隆而實未詳契遇於何王之時逮至麗季有太常卿諱伯其間傳世厥有累矣而不幸壬辰家籍蕩散文獻無稽自大匡公以下其昭穆宗支固未知傳幾世而分幾派矣可勝卓哉可勝悼哉是以自吾先代以及今日意欲推檢載籍搜訪闕遺以爲修譜之計而歷世三四終未得其詳循是無爲則得不懼於無譜之歸乎余於是謹以所知闕疑載詳修成一譜自太常卿以下十有一代逐世叙列諱斯某字斯某生于是卒于是各載於其下班資之崇卑際遇之世代亦且瞭然於一編之中欲使後來者無蹈今日之失系而至若墳墓

之遠近誌碣之有無雖列於名諱之左散漫疎略恐難領會故謹取諸代邱墓之崗原同異龍穴負向纖悉鐫錄別書于下觀此譜者庶可以知其詳也夫

崇禎紀元後再癸卯仲夏

後孫 普顯 謹序

仁同張氏世譜舊序 (번역문)

나라에는 歷史가 있고 종족에는 族譜가 있으니 歷史와 族譜는 그 詳細함을 기록하고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니 나라에 이미 歷史가 없을 수 없은즉 종족도 또한 族譜가 없을 수 없다 아! 오직 우리 張氏는 모두 仁同을 宗으로 하고 三韓以來로부터 千百年을 경과하여 后孫이 不億(많다는 뜻)이나 그러나 親屬이 소원해 지고 后孫이 멀어져서 지금 或 族을 달리하고 貫을 달리하는 자가 있으니 그 源流의 分派된 것과 그 가지와 줄기가 옆으로 뻗은 것은 비록 어느代부터 始作됐는지 考證한 수는 없으나 오직 우리 일가만이 유돈 三重大匡(정승) 諱 金用으로 鼻祖를 삼고 그 벼슬이 勝國(高麗)에 극히 顯達하고 隆成했으나 實은 어느 王때인지 자세히 않다 高麗末에 이르러 太常卿 諱 伯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 동안 세상에 전할 적에 여러번 卿大夫(判書)가 있었으며 불행히도 壬辰亂을 만나 家籍이 불타고 흩어져서 文獻을 상고할 수 없어 大匡公 以下로부터 그 行列과 宗派 支派가 몇대를 전하고 몇파로 나뉘어 졌는지 진실로 알 수 없으니 가히 애석하고 애석하다 이로써 우리 先代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려있는 책을 미루어 검사하고 누락되고 없어진 것을 찾아 족보 발행할 계획을 하고자 하나 三、四代를 지나도록 끝내 그 詳細한 것을 얻지 못해서 이대로 하지를 못한즉 족보 없는데 돌아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에 아는바 로써 빠지고 의심나는 것을 자세히 실어 삼가 한 족보를 이루니 太常卿 以下로부터 十一代에 世代에 따라 行列을 叙述하여 諱는 아무개 字는 아무개 언제 태어나고 언제 卒(죽은 것)한 것을 각각 그 아래에 실어 놓고 資品의 높고 낮은 것과 어느 때에 登用되었는가를 역시 또 한책 가운데 一目瞭然하게 하여 后孫으로 하여금 今日 世系 잃는 것을 밟지 않도록 하여 墳墓의 遠近과 墓誌銘과 墓碣銘의 있고 없는 것같은데 에 이르서는 名이나 諱의 左에다 列舉했으나 散漫하고 疎略하여 아마도 알기가 어려운 까닭에 여러 代의 묘있는 등성이의 같고 다른 것과 龍穴의 坐向을 삼가 취해서 자세히 모아 기록하여 아래에 별도로 썼으니 이 族譜를 보는 者는 거의 가히 그 상세함을 알 것이다

崇禎記元后再癸卯年仲夏(西紀一七二三年) 后孫 普顯은 삼가 序하노라

仁同張氏大同譜序

有大木於斯雖千其枝萬其葉而木乎一根以是而喻諸人宗而族其麗千萬而推之以上乃一祖之孫

也以一祖之孫而代遠族大不能同吳中之居而流離分散至有面目之不相識慶吊之不相問焉則安得不爲塗人也哉此譜法之所由興也而譜亦有二道曰大同曰派譜然而世之爲譜者大率多止派譜而其於大同鮮有見焉者亦何哉蓋以大同者人衆而難諧派譜者事簡而易就也吾張之譜昉於文康公所錄而自是譜之者不止一再然非大同而皆止爲一派其亦取便於事簡也今於是譜之始役咸曰譜所以明先系而收宗族也明先系則貴詳其遠收宗族則貴及其疎欲其詳於遠而及於疎者則非大同曷以哉於是乎所謂難諧者不謀得諧而一國之爲吾姓者舉同於是譜一開卷有如百千諸孫唱諾於一祖之前而不知遠者之爲遠疎者之爲疎其於程夫子所云收宗族厚風俗而不忘本者庶幾得之矣豈不韙哉至於規例舉以先規爲準而亦不無參酌於其間各家先德之遠未及詳者一依本單書之勢然也上系則 文康公以 上將軍先祖爲起頭之祖而今則以 忠獻公圃蔭先生爲得姓始祖以詳於遠也在昔己丑之譜僉中樞公有序以 圃蔭公明證爲仁同人而曰吾姓之貫玉山安知不爲權輿於此也耶今譜之以 圃蔭公爲始祖者未必非中樞公之遺意而其曰當竣後日考訂者其或有俟於今日者歟余又有一言吾姓前乎是譜以一祖之孫而爲塗人後乎是譜以塗人而復知爲一祖之孫自今而不以代遠而爲遠派別而爲別又不以南北枝之有寒暖爲心而益修惇睦有不替於永世則是譜之作奚但爲吾宗之一大幸也抑亦有補於世教也盍相勉之哉役始於丙午春功告訖於丁未秋僉宗以余謂有終始於是役而要有一言謹書此于卷端

檀君紀元四千三百年丁未秋

后孫 禹鉉 謹序

仁同張氏大同譜序 其一 (번역문)

여기 큰 나무가 있으니 비록 그 가지는千이요 잎사키는萬이라 하나 그根本은 한 뿌리에서 비롯했으니 이로써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종족들이 그數가千萬이라 하나 위로 올라간다면 곧 한 할아버지의子孫이다 한 할아버지子孫으로써代數가 멀어지고 종족이 커져서 吳나라(范文正公의 宗族이 吳中에 많이 산데서 연유된 말)가운데 같이 살 수가 없고 헤어지고 흩어져서耳目이 있으되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慶吊事에서로問安하지를 못하는데 이른다면 어찌 갈가는 사람이라 하지 않겠는가 이는 族譜하는 法이 緣由해 일어난 所以여 族譜도 또한 道가 있으니 일러 大同譜와 派譜이다 그러나 世上에 族譜하는 者는 대체로 派譜하는데 그치는 例가 많으며 大同譜하는 사람은 보기가 드므니 또한 어쩔일인가 대개 大同譜는 사람의數가 많고 합하기가 어려우며 派譜하는 일이 簡略하고 成就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우리 張氏의 族譜는 文康公 記錄한바에 始作해서 이로부터 族譜한 것이 한둘이 아니나 그러나 大同譜가 아니고 모두 派譜에 그쳤으니 그 또한 일이 간략한 便利를 取한 것이다 지금 族譜하는 일을 始作함에 모두 말하기를 族譜는 先代의 世界를 밝히고 宗族을 거두는 所以이니 先代의 世界를 밝히즉 그 먼데 상세한 것이 貴하고 宗族을 거둔즉 그 疎遠한데 미치는 것이 貴하니 그 먼데 詳細하고 疎遠한데 미치고자 하면 大同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에 이른바 和合하기 어려운 者가 되하지 않아도 和合하여 한 나라의 우리 姓된 것이 모두 이 族譜에 같으니 한 권의 책을 열면 百千의 子孫들이 한 할아버지 앞에 읊하는 것 같은 것이 있어서 먼자가 멀어지고 소원한 자가 소원해 지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 程夫子의 이르는 바 宗族을 거두고 風俗을 厚하게 하여 根本을 잊지 않는 것을 거의 얻은 것이니 어찌 좋지않겠는가

法規와 範例에 이르러서는 모두 先代의 規例로서 準則을 삼았으나 또한 그간에 參酌한 것이 없지 않았으니 各家의 先代의 德이 멀어서 詳細한데 미치지 못한 것을 본 수단에 의지해서 쓰는 것은 勢가 그런 것이요 上系인즉 文康公이 上將軍 先祖로써 처음 始祖로 삼고 지금은 忠獻公 圃蔭先生으로 得姓의 始祖로 삼은 것은 먼데서 詳細하기 때문이다 옛날 己丑年 族譜가 있었는데 僉中樞公이 序文을 써서 圃蔭公이 仁同人이라고 밝게 證明하고 말하기를 우리 姓의 貫鄉 玉山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겠는가 지금 族譜에 圃蔭公을 시조로 하는 者는 또 말하기를 마땅히 后日의 考證을 기다리는 것은 그 或 今日를 기다린 것이 아닐까 내가 또 말할 것이 있으니 우리 姓이 이 族譜가 있기 前에는 한 조상의 后孫으로써 길가는 사람이 되었으나 이 族譜 后에는 길가는 사람으로써 한 할아버지의 子孫이란 것을 다시 알게 됐으니 지금으로부터 代數가 멀다고 해서 멀어지지 말고 派가 다르다고 해서 區別하지

말 것이며 南北 가지(枝)의 차고 따듯한 것이 있는 것으로 마음을 삼지 말고 더욱
惇睦하여 永世토록 변치 않는다면 이 族譜만 드는 것이 어찌 우리 宗族의 큰 多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世上教化에 보충하는 것이 있으니 어찌 서로 힘쓰지 않겠는가
丙午年 봄에 일을 始作해서 丁未年 가을에 마치니 여러 宗人이 나를 이 일에 始終
關與했다 하여 한마디 하기를 要請하니 卷端에다 삼가 이것을 적는다

檀君記元四千三百年丁未秋(西紀一九六七)에 后孫 禹鉉은 삼가 序한다

仁同張氏大同譜序

吾張之以仁同爲貫者蓋已遠矣 太師公圃蔭先生始入東國佐麗太祖平定三韓其勲業道德昭載
史乘且畏疊遺址賸享餘俗尚在蘆田爲仁同之人亦無疑而其后移貫分派之族則想必氏姓漸蕃名
賢多出或因其所居或因其所封不得不無者也故目今安東之太師廟城谷齋實以張爲姓者之所共
尊奉而遑歲不佞忝在都領之任修壇建樓亦出於追遠報本之誠也 緬惟 上將軍公則其於 太師
公世代未詳年紀不明不敢著書其間之幾世幾年然爲其後裔則似無可惑但恨文獻無徵莫可考據
而自后以降則昭穆次序瞭然井井故 文康公旅軒先生起爲一世之祖而斷之夫國之有史家之有
乘同一揆也孔子修春秋皆闕義黃而斷自唐虞則想必文康公之意亦此義也嗚乎 上將軍公積德
累仁以至今日千有餘年爲其子孫者其麗不億而布在八域可驗其餘蔭所發而其后三十餘世名公

巨卿鴻儒碩士繼繼承承文武簪組忠孝顯達彬彬郁郁蔚爲東邦之盛族然猶不悅於心者有焉幽宅失所深目無人則當築壇建齋不廢香火者禮義攸在而尚今未遑尊祖之誠猶歇一也子孫爲計范庄有規則當倣行施設以備教養者嘉猷所貽而又不得見慮遠之策不立二也宗族團合蘇氏有譜則當賀慶吊哀情誼交孚者敦睦之風而此亦不行路人之譏不免三也有是三者爲吾族之所欠而曾爲慨嘆者宿矣惟幸賢宗禹鉉炳宅亨植諸氏尊祖之誠裕後之計睦族之心有倍於人而爲是之懼肆發大同合譜之論飛文全國之族設廳於達府晝宵幹蠱已經一年今收單已畢將欲登印實吾張初有之事也莫大之役也諸氏之志方可謂誠且勤矣然惟恨自處逢亂之日鳥驚魚駭雲移星散顧我宗族或不安舊居而且南北相隔聲息莫通自不無遺漏阻絕之嘆勢所未由而必天運循環不遠來復則自有國土統合之日矣若有憑信可據之籍豈無編入之道乎顧余不佞亦忝在宗末秉彝攸同當周旋於助役之日而職務所絆未得遂意雖愧且根然深嘆賢宗之誠謹書所感者如右云爾

丁未九月 日

後孫 大韓民國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基榮 謹識

仁同張氏大同譜序 其二 (번역문)

우리 張氏는 仁同으로 貫鄉을 삼은 것은 대개 이미 멀다 太師公 圃蔭先生이 처음으로 東國에 들어와서 高麗 太祖를 도와 三韓을 平定하니 그 勲業과 道德이 史乘(史記)에 밝게 실려있고 畏疊끼친 터에 享祀지내는 남은 습속이 蘆田에 있으니 仁同사람된 것은 또한 疑心할 수 없다 其後 貫을 옮기고 派가 갈라진 일가들은 생각컨대

반드시 氏姓이 漸漸 蕃盛하고 名賢이 많이 나와 或 그 사는 바로 因하여 或은 그 벼슬한 바로 因하여 없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지금 安東 太師廟 城谷齋는 실상 張으로 姓氏 삼은 자가 같이 尊奉할 바이고 지난 해에 내가 욕되게 都領의 責任을 맡아서 壇을 修理하고 樓를 세워 또한 먼데를 追慕하고 根本을 報答하는 데에 나아가는 정성이다. 생각컨대 上將軍公이 太師公에게 世代가 確實치 않고 年記가 不明하여 敢히 그 사이 몇代 몇年이 됐는지 밝게 쓸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后裔인 것만은 疑心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 단지 文獻으로 證明하지 못하고 考證할 길이 없는 것이 恨이 된다. 그 후에는 昭穆과 次序가 一目瞭然하게 밝은故로 文康公 旅軒先生이 一世의 祖로 일으켜서 斷定했다. 무릇 나라에는 歷史가 있고 집에 家乘이 있는 것은 같은 법인데 孔子가 春秋를 닦을 적에 卜義黃帝를 빼고 唐虞로부터 斷定한 것을 생각컨대 반드시 文康公의 뜻도 또한 이런 것이다.

아! 上將軍公이 德을 쌓고 仁을 쌓아 今日에 이르기까지 千有餘年인데 그 子孫된者 그 數가 不億(많다는 뜻)인데 八道에 흩어져 사니 可히 그 남은 蔭德이 發한 바를 證驗하겠고 그 后三十餘代에 名公과 巨卿과 鴻儒와 碩士들이 계속해 이어져서 文武 벼슬아치와 忠孝로 顯達한 분이 彬彬郁郁(많고 盛하다)해서 堯연히 東邦의 번성한 宗族이 됐다. 그러나 아직 도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니 산소가 失傳되어

찾을 길이 없은 즉 마땅히 壇을 쌓고 齋室을 세워 香火(祭享)를廢하지 않는 것은
 禮와 義가 攸在(있는 것)하는 것인데 아직도 겨를이 없으니 祖上 존중하는 正성이
 뒷전 간 것이 그 하나요 子孫이 范庄(范文正公이 농장을 만들어 장학금을 주어 后
 進을 養成한 것)을 計劃할게면 法이 있으니 마땅히 模倣해 行하고 施設을 해서 써
 가르치고 기르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아름다운 궤에 끼친 바인데도 또 볼 수가 없으니
 먼데를 念慮하는 謀策이 서지 않는 것이 그 둘째요 宗族이 團合하고 蘇氏(族譜를 最
 初로 만든 소동파의 아버지 老泉을 이름)의 族譜한 것은 마땅히 慶事를 祝賀하고 哀
 事를 吊喪하는 情誼가 交合하는 敦睦의 風俗인데 이 또한 行하여 지지 않아서 길가
 는 사람의 흉을 免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셋이다 이 세가지가 있는 것은 우리 宗族
 의 흠된 바이니 일찌기 慨嘆한지가 오래이다 오직 多幸한 것은 어진 宗人 禹鉉 炳
 宅 亨植 諸氏가 祖上 尊重하는 正성이 后孫에 내리는 계책과 宗族間에 親睦하는 마
 음이 남보다 倍나 되어 이를(세가지) 두려워하여 곧 大同合譜할 議論을 發하여 全國
 에 편지를 띄우고 大邱에 都廳을 設置하여 밤낮으로 일을 주관한지가 一年이 지났다
 지금 名單을 거두는 것을 이미 마치고 장차 刊行하고자 하니 實은 우리 張氏에 처음
 있는 일이고 莫大한 役事이니 諸氏의 뜻이 바야흐로 가히 正성스럽고 또 부지런하다
 하겠다 그러나 오직 恨스러운 것은 自虎가 난리를 만나 새가 놀라고 고기가 놀라고

구름이 옅기고 별이 흩어지니 우리 宗族을 돌아보건데 或 舊居에 不安하고 또 南北
이 막혀 消息을 通할 수 없으니 자연히 빠지고 끊긴 탄식이 없을 수 없으니 사세가
어쩔 수 없는 것이요 반드시 天運이 循環하여 머지않아 收復이 되면 國土統攝의 날
이 있을 것이니 萬若 民을 수 있고 依據할만한 記錄이 있다면 어찌 編入하지 않겠는
가 돌아보건대 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욕되게 宗末에 있어서 땃땃한 것을 잡은 것
이 같은 바이어서 마땅히 일을 돕는 날에 周旋하여야 하나 職務에 얽힌바로 뜻을 이
루지 못했으니 부끄럽고 또 부끄러우나 그러나 어진 宗人들의 正성에 깊이 감탄하여
右와 같이 삼가 所感을 적는다

檀君紀元四千三百年丁未九月

日

後孫 大韓民國 副總理兼 經濟企劃院

長官 基榮은 삼가 쓴다

舊譜序

吾張之爲東方盛族不知幾百年而世代已遐文獻無徵原初根源有難詳知 文康公手記曰或云吾
張氏本以中原人古有一將奉帝命來征我東因留一子遂爲東人此乃但記其所聞非以爲的然也各
處所錄曰中原大光公主出來時八學士陪來而其中有張學士我國之張始於此云而亦非眞的文字
不可準信其餘先輩之收聚傳說隨聞隨錄世代序次字諱官爵非不詳且明矣而亦不敢強以爲眞只

自然疑於中而恨無憑信之地矣近又得見國乘則圃蔭公諱吉以中朝人來東國封仁同府院君又建祠于蘆田蘆田即仁同府南十許里之地也既封仁同又賸享於仁同則圃蔭公之爲仁同人明矣吾張之貫玉山安知不權輿於此也然其在慎重之道不敢強以爲必然當俟後日考訂耳逮至我上將軍先祖數十餘世以下世代昭穆株然而有序也蹟勲業燦然而可傳達官崇品連世襲休大賢名儒前後接武蟬聯烜赫震耀一世至於文章宏傑之才大小科甲之榮代不乏絕雖今日後孫之墜先業不振如此而世人猶曰名門甲族苟非祖先之積德累仁而流澤於雲仍何能若是噫毓善美於先代而承慶綿祿於後裔則理之可必有如是夫獨恨夫龍蛇之變各自圖生風靡波蕩轉轉流移而星霜累換蓬弱相隔而目焉不相識聲息焉不相通有若花飛風頭不知散落何處則至于今日其世代行序何從而的知哉幸因文康公亂後所記僅知某之子爲某而已今於作譜之日遠近譜單先後來到叅互考正裒成一秩於是乎本支有序世代不棄昔之不明者今焉始明向之未知者今焉始知則此豈非吾宗之大幸耶其中有大系之中絕而不相屬居住之絕遠而不及來者終不得同譜實是幸中之不幸也然日後如有可信文蹟及追後願八者則亦豈無變通之道耶噫諸宗系分離有遠近之殊而各派祖先俱載一秩之中則雲離星散居不得相同喜慶憂吊事或有不逮而摠之爲一祖之孫也永言思之能不愴感于中耶從今以後由根而尋葉自源而溯派不問遠近而益篤敦厚之風莫計尊卑而務盡和好之意或不無眉睫之失忝系之嫌而不與之相較以至億萬斯年之久而世世惕念遵而勿替則人將指吾宗而曰姻睦之門豈不猗歟程夫子所謂收宗族厚風俗亶其然乎譜之成在己丑蓋體先輩之遺意而追既往之

未遑云爾

後孫 僉中樞趾學八十五歲 謹序

舊譜序 (번역문)

우리 張氏가 東方의 번성한 宗族이 된 것은 몇 百年인지 알 수가 없으나 世代가 이
미 멀고 文獻에 考證이 없어서 당초의 根源을 詳細히 알기 어려운 바가 있다 文康
公 手記에 或 말하기를 우리 張氏는 本來 中原사람으로 옛날 한 將帥가 있었는데 皇
帝의 命을 받들고 우리 東邦을 征伐하러 왔다가 한 아들을 남겨두어 동쪽 사람이 되
었다 하니 이는 다만 그 들리는 바를 기록했을 뿐이고 確實하지는 않다 各處에 기
록된 바에는 中原의 大光公主가 나을 적에 八學士가 陪從해 왔는데 그 중에 張學士
가 있었으니 우리나라의 張(氏)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으나 또한 確實한 文字
가 아니고 믿을 수가 없으며 그 나머지 先世가 收聚한 傳說은 所聞에 따라 記錄한
것이고 世代序次와 字諱官爵이 자세하지 않고 또 확실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으니
또한 敢히 억지로 眞實이라 할 수 없고 자연히 그 가운데에 의심이 있어서 믿을만한
곳이 없는 것이 恨이다 近來에 또 歷史를 보면 圃蔭公의 諱는 吉이니 中國사람으로
東國에 와서 仁同府院君에 封하고 또 蘆田에다 祠堂을 세웠다고 하니 蘆田은 곧 仁
同府 남쪽 十里地点이다 이미 仁同을 封하고 또 仁同에 祭享지낸즉 圃蔭公이 仁同
人인 것은 確實하다 우리 張氏의 貫鄉 玉山이 어찌 여기에서 始作된 것이 아니라

하겠는가 그러나 그 慎重한 道가 있는 것이 敢히 억지로 반드시 그렇다고는 못하고
 마땅히 后日의 考證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 上將軍 先祖에 이르러는 數十餘世以下
 代數와 行列이 整然하게 차례가 있고 事蹟과 勲業이 燦然하게 가히 전할만하고 達
 官(벼슬에 높이 오르는 것)과 崇品(높은 品階)이 대대로 전해지고 大賢과 名儒가 前
 后 계속하여 빛나고 찬란해서 一世를 震耀했다 文章의 큰 재주와 크고 작은 科擧에
 合格한 榮譽에 이르러서는 대대로 끊어지지 않았으니 비록 오늘날 后孫이 先代의 業
 을 墜落시킨 것이 이와 같이 不振하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이 오히려 名門甲族이라
 하니 진실로 先祖의 德을 쌓고 仁을 쌓아서 后孫에 내린 惠澤이 아니고 어찌 능히
 이와 같겠는가?

아! 先代에 착함과 아름다움을 길러놓고 后孫에 慶事를 잇고 祿을 끝은즉 理致가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이 있다 오직 恨은 壬辰亂에 各自 圖生해서 바람에 쓸리고 여
 울에 떠서 轉轉流移하여 여러해가 바깥에 부평초같이 서로 떨어져 面目을 서로 알아
 보지 못하고 소식을 서로 통하지 못해서 꽃이 바람에 날려 어느곳에 떨어지는지 알
 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 있은즉 今日에 이르러 그 世代와 行序가 어디를 쫓아 분명
 히 알겠는가? 多幸히 文康公이 亂后에 記錄한바로 因하여 겨우 누구의 아들 누구
 라는 것을 알 따름이다 지금 族譜 만드는데 날에 遠近의 族譜收單이 先后로 來到하니

參考하고 서로 考證하여 모두어 한 秩을 이루니 이에 本孫 支孫이 차례가 있고 世代
가 紊亂치 않아서 옛날 分明치 않은 것이 비로소 分明해졌고 요전에 알지 못한 것을
지금에 비로소 아니 이것이 어찌 우리 宗中の 큰 다행이 아니겠는가? 그 中에 系代
가 끊겨서 서로 연속되지 않고 사는 곳이 아주 멀어서 미쳐 오지 못한 자손이 있어
서 마침내 부득이 같이 族譜를 못하니 實은 이것이 多幸中不幸이다 그러나 日後에
만일 민을 만한 文籍이나 追后 들어오기를 願하는 子孫이 있다면 또 어찌 變通의 道
理가 없겠는가?

아! 諸宗의 系分(寸數)은 비록 遠近의 다름이 있으나 各派의 先祖가 같이 한 책가
운데 실렸으니 구름같이 떠나고 별같이 떨어져서 서로 같이 居하지를 못하고 喜慶事
나 吊事間에 或 미치지 못한 點이 있다해도 총괄해서 한 할아버지의 孫인 것이다
깊이 생각해 보면 能히 그 가운데 슬픔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제로부터 이후로는
뿌리에 연유해서 引사키를 찾고 根源으로부터 派를 거슬러 遠近을 不問하고 더욱 敦
厚의 風을 篤實히 하여 尊卑를 계교치 말고 和合하고 좋아하는 뜻을 다하기를 힘써
서 或는 살 찌프리는 실수와 작은 혐의가 없지 않아도 더불어서 서로 교제치 말
고 億萬年 오래 되도록 代代로 조심하고 생각하여 따라서 바꾸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將次 우리 宗族을 가리켜 和睦한 門中이라 할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程

夫子가 이룬바 宗族을 거두고 風俗을 厚하게 한다는 것은 眞實로 그런 것이다 族譜
가 己丑年에 完成됐으니 대개 先世의 남긴 뜻을 體驗하고 기왕여 겨를 없는 것을 미
루어 이룬 것이다

后孫 僉中樞 趾學이 八十五歲에 삼가 序한다

仁同張氏世譜總編初疊

始祖張貞弼

初諱吉諡忠獻號圖
統合三韓麗太祖親
嶺乾坤三韓摧慄掃
全忠孝德備強柔成
師創建成功教設俎
呂昔西大賢今東夫
圖蔭公諱吉以中朝
又餼享於仁同則圖
姓之祖然不敢真的
蔭本中華人來東以
製祭文曰臣貞弼上
盡東南瀾無風塵日
若以鴻業輔若以忠
豆三綱柱立入條宗
子若前若後東方一
人來東方封玉山府
蔭公之為仁同人明
著代故以上將軍公
諱金用為一世祖
後更名字也以中國
受天命下拾人心又
下登龍月德布海赤
貞天雖歸命應禪亦
張鄒魯輯讓漢唐文
人君以師事師以道
院君又建祠于蘆田
矣吾張之貫玉山亶
諱金用為一世祖
名揚於本國於義不
得良佐藝德君子周
手取衰是誰之功姓
難若非斯賢曠成其
物三韓昔夷一統今
尊爵以太師執以錄
蘆田則仁同府南十
在此也文康公手錄
曰圖蔭公為吾張得

遠祖

張金用

子善

二世

子震

三世

子國伸

四世

子信元

五世

子世林

六世

高麗三重大匡神
虎衛上將軍 謹

金吾衛精勇將軍
謹按東國通鑑

仁勇校尉

奉正大夫內史令
直史館

及第 職啣先傳

子百林

子世圭

子世梓

二下 二下 三下 三下

按家藏文獻則嶺
南宗人之出家者
來言上將軍墓
在咸陽府內而墓
傍居民至今稱張
政丞墓惡其子孫
之或為來護折其
碑況之墓前淵中
而莫能記小地名
云

云高麗文宗二十
六年壬子一〇七
二年七月校尉臣
身謀叛公以兵士
告其叛狀命捕誅
之擢公為將軍兄
弟子孫各賜爵一
級

善震 國伸 元信 再疊

七

世

八

世

九

世

十

世

十一

世

仁同張氏世譜舊跋

右仁同張氏世譜凡二十編自鼻祖大匡公三十餘世昭穆宗支以次載焉可謂根深而源遠矣然其傳世文獻佚於壬辰兵燹迄數百年而譜未就今焉始成亦豈有待而然歟嗚呼家而有族族而有譜古也其在上世三物六行睦姻居一譜在其中譜之有關於世教固如是矣我東士族尤以譜爲重而近世以來日新月盛殆家戶遍焉蓋屬淪疎而世德日遠不爲之修明其譜則將無以維持其族也亦豈非衰世意耶然而觀於程子之訓蘇氏之文其根孝悌厚風俗者惟譜是資則亦安可不以譜爲重也張氏之貫玉山者實名門望族而麗季以前旣靡所徵攷至于我朝官位始詳自此而簪組蟬聯名卿繼作門闌秀顯子姓氏繁吁亦盛矣惟我外曾考都正公慨念譜牒之累世未遑始作草本未及刊行而卒自是以後門戶日益衰零今其後孫鉉禹以眇少一書生追恨先志之未究發論於窮廬之中受任於板蕩之餘聚議諸族鳩合財力數載而工告訖有志者事竟成果不誣矣以余忝在外裔之末來徵跋語噫數百年未就之譜都正公未率之業而鉉禹能成之其繼述之美余固咨歎之不己則義不可以不文辭聊書數語於後以歸之若其編摩規度之詳略得失觀者自可知也夫歲乙丑抄秋上浣外裔錦城吳鼎源謹跋譜之謂普也普合統緒以記世族繼序者也 聖祖受命我東屬世休明知禮家重昭穆而序宗支譜所以作者是己世教之污隆余於譜足可徵也吁我張之得姓受氏載籍博矣自軒皇後雖億歲在前以張傳姓者溯流而尋源則其歸一也前乎太師後乎上將公溯其次則上下數千載春秋闕疑之傳非其無有也此則尚矣至我 朝名碩之蟬聯往往若山出岳降豐功盛烈遂成大族各居一方食舊德而彬文

學者其麗亦且不億猗歟盛哉往於甲子譜先輩諸宗公彰先業而裕後系合爲一譜二十編宗支之次序立綱矧目己爲一宗成規其啓迪嘉猷式在後人所當述事且以一甲之久後生之昭穆亦已成列語其時則非可也殆亦晚矣幸我宗議一倡詢謀僉同同人之于野于門雖居千里之遠易象之正應可見況於繼先裕後之道其在斯乎余以老醜齒於後孫先德之潛光謏聞寡陋未克闡明舊乘之外是不罪歟乃若尊昭穆序子姓使先輩之嘉謨義例開卷瞭然僉宗有司之責存焉至於根孝悌厚風俗讀蘇老譜者庶同乎秉彝之性也已歲壬申孟秋後孫漢軫謹跋

凡此譜之彙爲六編即我十五代祖鎮安公以下派譜也甚矣吾宗之衰也經五百餘年而雲耳之系僅得六編豈不尤有感於孝悌之心歟夫我張之得姓受氏始自軒皇其在中國固已盛矣至于我東在麗朝時太師公以文章道德勲業功名冠乎東國東國之張始昌而貫異族別者爲四十餘本之多亦未詳其傳幾代今幾派此疑辨錄之所由作也在麗文宗時大匡公父子以勲勞顯達貫仁同者實祖焉自是之後繼序相承終麗氏之世聞人顯爵前後相望及至忠貞公自靖之後史有闕文家有隱德于斯時也殆哉岌岌乎文獻莫徵昭穆年代有不敢直系京以太常卿金溝以鎮安公各起爲中祖以存慎重之意而合譜焉越自癸亥至壬申七十年之間合譜者再而猶未與仁同合今又庚子譜前成於京戊申譜後成於金溝噫百世同本之誼豈一譜兮合之所可隆殺歟然吾祖宗視之則均是子孫自中祖遠祖以至得姓受氏之軒皇皆然耳嗟吾譜中僉族推本一家父子兄弟孝悌之心以及乎九族百世敦睦之誼則庶不悖乎祖宗均視之仁而雖族別而貫異者亦同歸一本矣觀吾譜者庶有所興感於知本也夫戊申

五月上浣後孫榮國謹跋

譜之爲言普也普合氏族宗支昭穆之事也我張氏之貫仁同者在高麗大匡公父子以勲勞顯忠貞公父子以節義著至本朝名卿碩儒簪組蟬聯繼世而作食舊德而彬文學者多遂成東方望族是豈非先世之餘蔭歟吁亦盛矣夫有族而無譜則不能維持其統緒成其敦睦之誼故先輩諸宗公嘗眷眷於斯前而癸亥後而壬申再成大譜矣于今三十七年之間子孫之生卒科宦不載其中者亦多恐其愈久而愈失其傳也故我族叔副卿泰秀氏亦推感先輩之事欲修大譜而以諸宗散在四方勢難卒合故大匡公以下各派支分昭詳懸錄鎮安公以下修成派譜後之覽者即於斯而上溯本源旁及諸派則氏族之繼序昭穆燦然瞭然亦無所事於大譜也至於承先裕後之道敦宗睦族之誼自親而至疎自近而推遠則尤有資於是譜也夫

歲戊申五月上浣

後孫 榮烈 謹跋

跋

仁同張氏族譜始於純廟癸亥壬申而再同京都中兮戊申而今依戊申者非不知大同之爲美也勢所然也京與金溝各居一方且金溝而又散處各鄉各鄉之於金溝如金溝之與京世道益下雲仍繁衍事巨力綿難與爲謀收錄金溝與各鄉奠居之鎮安公子孫修成一譜與大匡公子孫糾合京鄉成譜事異義同耳京仁分譜金溝亦兮一譜爲三黃河流清瑞日朝紅三譜爲一則一根萬葉散飛無方終焉

歸根同派異流萬折其曲必也就東是亦勢然百世之下萬百其孫一此不懈孝之心油然而敦睦之風怡然則大匡公英靈洋洋在上曰予有後予有後尸事以誠鉉重鉉鍾兄弟也相役則余亦與焉譜既成謹書所感于中者如此云爾

歲甲午(一九五四年)三月

日

後孫 昌圭 謹跋

世譜跋

惟我張氏粵在己丑始修世譜癸卯癸亥乙丑壬申自大匡公以下華合修整俾有敦親睦姻之義其後戊申甲午只修鎮安公一派派譜此非分疏戚而然也勢不得已也遠近諸宗以是病焉常擬再修合譜尚爾未就嗚呼譜書之作何其難也自甲午至今又二十九年矣其間存沒生殖變遷無窮而第世逾遠派逾分散落四方聲息不相通者殆至十常八九而實難廣覓遍收於散居遠宗也故諸宗爛商協議先從親親自近近義姑就我鎮安公脚下褒聚修錄閱歲而僅成一部矣惟我諸族若聞是譜之成必有興感者各自修錄如是則倘不費各派收單之勞而合而一之可成全譜矣豈不美哉惟我諸族旃勉旃不肖猥任席末而凡例則一遵舊譜略有增減墓誌山圖亦附菴末俾爲後人之有所觀感云爾

壬戌一九八二年九月

日

後孫 梓圭 謹跋

世譜跋 (변역문)

오직 우리 장씨는 처음으로己丑보을 발간하고 계묘 계해 을축 임신보를 만들어 대

광공 이하로 시작해서 모우고 수정해서 하여금 돈목하는 의를 잊겠금 했었고 그 후 무신 갑오년에 다만 진안공과 파보만 했으니 이것은 멀고 가까운 것을 나눠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세가 부득의 한 것이니 멀고 가까운 여러 일가가 이것을 병으로 여겨서 항상 두 번 합보를 작성하려다가 아직도 성취를 못했으니 아! 족보의 작성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어려운가

갑오년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二十九年 이어서 그 간에 낳고 죽은 것이 무궁하게 변천되었고 또 세대가 더욱 멀어지고 파가 더욱 나누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져 살아서 소식을 통하지 못한 것이 십중팔구 이어서 실로 멀리 사는 여러 일가를 널리 찾기가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일가가 두루 의논해서 친한 이를 친하게 하려면 가까운 데로부터 한다는 의를 따라서 우리 진안공 자손만 모으고 수록해서 한 해를 거쳐서 겨우 일부를 이루었으니 오직 우리 모든 일가들을 이 족보 이룬 것을 듣는다면 반듯이 느끼는 게 있을 것이고 각자 이와 같이 수록한즉 각파 수단에 노고를 허비하지 않고 합해서 하나로 한다면 온전한 족보를 이룰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우리 모든 일가 분들은 힘쓰고 힘쓸지 어다

나도 외람하게 참여해서 범예는 한결같이 예전 족보를 따라서 약간 증감이 있고 묘지와 산도를 또한 상권에 붙여 놓아서 뒷 사람에게 보고 느끼는 게 있겠금 한 것이라

仁同張氏鍾安公沂世譜一卷

五八

임술一九八二年九月 日

후손 재규 근발